

<9월 19일 토요일 법회 식순>

*** 1부 : 사시헌공**

♪ 찬불가 연습

*** 2부 : 불교대강좌**

- 삼귀의
- 찬불가
- 원장스님 말씀
- 청법가
- 법문-절 수행 입문(교법사 진우스님)
- 새신도 환영
- 합창단 음성공양
- 정근
- 발원문 봉독
- 사홍서원

<초청강좌 안내>

날짜	법회주제	법사
9. 26(토)	추석 - (휴회)	
10. 3(토)	개천절 - (휴회)	
10. 10(토)	생활법문	정각원장 해주스님

<정각원 불교아카데미 모집>

구분	강좌내용	법사	강의실
입문반	불교입문	고금스님	법학관 B158
교리반	I 초기불교 불교신행	정천스님	명진관 A103
	II 대승불교 불교문화	명선스님	
漢詩반	한시(漢詩)강좌	동봉거사님	명진관 A105

매주 토요일 법회 후 13시 30분부터 진행합니다

올미년 인등을 밝히세요

각자의 원을 담은 공덕행(功德行)!
행복도량 정각원에 인등을 밝히세요~

- ◎ 인등 : 1년 5만원 <토요 사시기도에 축원해 드립니다>
- ◎ 신청문의 : 정각원 행정팀 ☎ 2260-3016~20

추계 사찰순례 안내

사찰순례와 함께 방생기도를 하며
자비희사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아요!

- ☆ 일 시 : 불기 2559. 10. 31(토) 08:00~17:30
- ☆ 장 소 : 충남 서산 간월암, 보원사지, 서산대애삼존불
- ☆ 참가비 : 50,000원(방생기도 비용 포함)
- ☆ 인 솔 : 교법사 진우스님
- ☆ 대 상 : 정각원 신도(선착순 접수)

☎ 2260-3017~9



<대각전 원불봉안 안내>

염원을 담아 願佛 봉안하시고
기도성취와 동국대 발전에 함께 해주세요.

1人 1佛 - 100만원 이상(분납가능)

금년 봉안 법회는 12월 5일(토)에 봉행하오니 원불봉안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보시동참

☎ 9월 14일 불전 공양 ☎

₩2,374,000원 (복지기금 적립 포함)

해주스님, 진우스님, 김형근, 구리시효자봉비어, 권복숙, 권혁재, 김동연, 김문자, 김상애, 김순, 김원옥, 김종관, 김지연, 남대문효자손만두, 남창강, 박성진, 박세협, 성장기, 신재호, 안기영, 원서준, 윤병남, 윤호문, 이기형, 이성부, 이수준, 이영숙, 이인주, 정광자, 정보현, 정진이, 주호빈, 주호성, 한영옥
(그 외 무기명 보시 불자님)

☎ 법회경비 집행내용 : 교비 지출 ☎

₩3,017,420원

(법사비, 토요일법회 촬영과 편집비, 법보지 인쇄비 등)

☎ 인등 기도 ☎

권숙자, 김순배, 최련희, 한단, 한정룡

☎ 공양 보시 ☎

- ❖ 대중공양 : 불자 교수회
- ❖ 불단 떡/과일 : 정각원 신도회

☆ 부처님께 올리는 여섯 가지 공양(향, 초, 차, 과일, 꽃, 쌀)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남인도 선재 구법 여행을 함께 해요!

福城에서 普陀洛伽山으로! 용수보살 고향과 달마대사 향지국 경유

- 순례기간 : '15년 12월 23일 ~ '16년 1월 1일(10일)
- 지도법사 : 정각원장 해주스님
- 동참금 : 3,090,000원(현금할인가)
- 일정 : 델리→비자야와다→아마라바티→넬로어→첸나이→간치뿌람→마말라뿌람→마두라이→간야꾸마리→알라피→사브리말라→코치→델리

☎ 정각원 행정팀 2260-3016~9 ☎ 아제 여행사 02)730-4008





정각원 토요일법보

信心장한 불자 됨이 불교의 희망입니다.

불기 2559(2015)년 9월 19일

제304호(週刊)



훌륭한 설법을 듣고 이해하면 힘이 된다.

듣고 안 것을 실천하면 힘이 된다.

사람이 성급하거나 게으르면 지혜도 배움도 늘지 않는다.

[숫타니파타]

8주년 기념 정각원 토요일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12일(토) 8주년 '정각원 토요일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사장 일면스님의 특별법문으로 법회를 풍요롭고 향기롭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신도님들께 감사드리며, 행복도량 정각원 토요일법회가 부처님 가피 가득한 법회로 거듭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정각원**

절 수행 입문

교법사 진우스님

공부(工夫)와 아부(阿附) 평소에 해야 한다.

비구는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를 보면 모두 다 예배하고 찬탄하며 말하였느니라. ‘나는 여러분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보살도를 행하여 반드시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得大勢야 以何因緣으로 名常不輕고 是比丘가 凡有所見의 若比丘比丘尼와 優婆塞

優婆夷를 皆悉禮拜讚歎하고 而作是言호대 我는 深敬汝等하야 不敢輕慢하노니 所以

者何오 汝等이 皆行菩薩道하야 當得作佛이니라

이 비구는 경전을 읽지도 않고 외우지도 아니하며 다만 예배만 행하였느니라. 멀리서 사부대중을 볼지라도 또한 쫓아가서 예배하고 찬탄하여 말하였느니라. ‘나는 여러분을 깊이 공경하고 감히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은 다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而是比丘는 不專讀誦經典하고 但行禮拜하며 乃至遠見四衆하고 亦復故王하야 禮拜

讚歎하고 而作是言호대 我不敢輕於汝等하노니 汝等이 皆當作佛이니라

사부대중 가운데 성을 잘 내어 마음이 맑지 못한 사람이 악한 말로 꾸짖고 욕하기를 ‘이 어리석고 무지한 비구야, 너는 어디서 와서 우리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노라 하며, 또 반드시 성불하리라 수기까지 하느냐? 우리들은 이와 같이 허망한 수기는 소용없노라’하니,

四衆之中에 有生瞋恚하난 心不淨者하야 惡口罵詈言호대 是無智比丘야 從何所來하야

自言我不輕汝라하고 而與我等授記호대 當得作佛이어노 我等은 不用如是虛妄授記라하야

이와 같이 여러 해 동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항상 비웃음과 욕을 들을지라도 성을 내지 않고 말하였느니라. ‘그대들은 반드시 성불하리라.’ 그가 이런 말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혹은 막대기나 기와 또는 돌로 때리면 멀리 피해 달아나며,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나는 감히 여러분을 가뻐이 여기기지 않노니, 여러분은 다 성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항상 이런 말을 하고 다녔으므로 증상만의 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는 그를 상불경이라는 별호를 붙였느니라.

如此經歷多年에 常被罵詈호대 不生瞋恚하고 常作是言호대 汝當作佛하리라
여차경력다년 상피매리 불생진에 상작성언 여당작불
 說是語時에 衆人이 或以杖木瓦石으로 而打擲之어든 避走遠住하야 猶高聲唱言호대 我不敢
설시어시 중인 혹은장목와석 이타적지 피주원주 유고성창언 아불감
 輕於汝等하노니 汝等이 皆當作佛하리라 以其常作是語故로 增上慢比丘比丘尼와
경어여등 여등 개당작불 이기상작성어고 증상만비구비구니
 優婆塞優婆夷가 號之爲常不輕이라하니라
우바새우바이 호지위상불경

『묘법연화경』 「상불경보살품」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법당에서 염불하는 청수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술집에서 웃음 파는 엄숙한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넓고 넓은 들판에서 흙을 파는 부처님들
 우렁찬 공장에서 땀 흘리는 부처님들

자욱한 먼지 속을 오고 가는 부처님들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 없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고요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꽃밭에서 활짝 웃는 아름다운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천지는 한 뿌리요 만물은 한 몸이라
 일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일체이니
 모두가 평등하며 낱낱이 장엄합니다.

구름 되어 둥둥 떠 있는 변화무쌍한 부처님들
 바위되어 우뚝 서 있는 한가로운 부처님들
 오늘은 당신네의 생신이니 축하합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세계는 모든 고뇌를 초월하여
 지극한 행복을 누리며 곳곳이 불가사의한 해탈도량이니
 신기하고도 신기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귀여운 부처님들
 허공을 훨훨 나는 활발한 부처님들
 교회에 찬송하는 경건한 부처님들

입은 옷은 각각 달라 천차만별이지만
 변함없는 부처님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